
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 </div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2.1.6.(목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 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수 빈 사무관 (02-2100-2833)
	금감원 기획조정국장 김 정 태 (02-3145-5900)		박 용 운 팀장 (02-3145-5930)

제 목 :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새해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- 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새해를 맞이하여, 금일(1.6일) 2022년 신년 회동*을 가졌습니다.

* (일시/장소) '22.1.6일 10시 / 금융감독원

- 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, 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, 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우리 경제·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였습니다.
- 특히, 가계부채 위험, 자영업자부채 누증, 非은행권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금년도 양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으며,
 -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.

□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장·배치* 되어 최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* 금감원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으로 인력충원(+80명), 금융데이터실 신설 등

○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감독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□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,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.

○ 특히,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사전적·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□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 새해에도 금융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양 기관 공조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.

○ 두 기관장은 앞으로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흔들림없이 유지하면서, 디지털 확산을 비롯한 금융산업 여건변화 등 당면한 도전요인들을 혁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